



海外市場情報

世界の半導体 내년부터 回復

— Thomson子会社 社長, 16%増 238억弗 市場으로 —

프랑스 國營 電機그룹인 Thomson 산하의 電子素子 메이커 Thomson Composant社의 노엘 社長은 최근 세계의 半導体 需要가 86년부터 회복으로 전환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에 의하면 금년의 수요는 전년대비 17% 감소한 205억弗에 머물지만 86년에는 16% 증가한 238억弗에 달하고 87년에는 다시 26% 증가되어 300억弗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歐洲 市場의 내년도 회복은 6%로 다소 둔하지만, 美國에서는 이것이 22%, 日本에서는 15%로 예상된다. 87년에는 각기 20%, 26%, 22%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Grundig, 印度에 VTR 工場 建設

— 一年間 30만대 생산, 開發센터·訓練 시설 병설 —

西獨의 家電 메이커인 Grundig社가 印度에서 VTR의 생산을 개시한다. 印度 國營 電機 메이커인 Electronics Trade & Technology Development社와 최근 조인된 假協定에 따르면, 연간 生産 계획은 최고 30만대, 工場에는 開發센터와 要員訓練 시설이 병설된다.

현재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VTR은 거의 100%가 日本製로서 이것도 Full Knock Down에 가깝다. 이에 대해 Grundig의 계획에는 3년 이내에 部品을 포함한 전면 現地生産에 대한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台灣, 필리핀에 VTR 月1,000대 輸出

— 아울러 東南亞 지역에도 수출 계획 추진 —

台灣의 소식에 의하면 台灣의 新傑社가 금년 11월부터 매월 1,000대의 VTR을 필리핀에 수출한다. 또한 이외에도 東南亞 각국을 겨냥해서 수출할 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新傑과 台灣Sony(新力)에 따르면 新傑은 11중순부터 하순에 최초로 1,000대를 필리핀에 수출한다. 동기중은 현재 台灣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종을 개량한 것이다.

新傑은 이미 原材料를 구입, 곧 제조를 개시할 계획이다.

東南亞 各國의 電子工業 모두 苦境

— 86年 展望 싱가포르, 香港, 台灣은 어둡다 —

최근 EIAJ(日本電子機械工業會)가 발표한 調查 報告에 의하면, 제일 큰 특색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電子工業은 現狀이 모두 예상외로 나빠서 84년의 수준에 비해 70~80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는데 日系 部品企業도 이 상황은 비슷하다고 한다.

이 결과 이번의 不況은 상당히 장기화 될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部品運營委員會 Marketing 研究会 中村正夫 主査)

주요 機器의 동향에 있어서는 컬러TV는 84년에 대단한 好調로서 각국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나 금년에는 그 反動으로 一轉되어 대폭적인 下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對美 수출제한 문제와 對中共의 스톱으로 Double Punch를 맞아 한국이 약간(10% 정도) 다운되는 이외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순조로워서 싱가포르, 台灣은 금년에 작년 수준으로 推移된다.

Video는 台灣의 경우 아직 大同, 聲室에 더하여 日系 3社가 생산을 개시하고 있으나, 日本, 한국을 상대로 하는 경쟁에서는 苦戰을 피

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에 있어서는 향간에 선전되고 있는 정도의 세력은 아니고 日本 제품의 코스트가 아직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어서 美國 市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생산량에 달하는 것은 아직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타 機器에 대해서는 東南亞에서 가장 중심적 존재가 되어 있는 Audio를 필두로 일시적으로 붐을 일으켰던 Cordless Phone, CB트랜시버, Perscom 관련기기, Game 기기 등이 현저히 不調로서, 전체적인 기반 침하가 主因이다.

1985年 東南亞 각국의 주요 機器 生産 展望

(단위 : 1,000대)

品 目	싱가폴	香 港	台 湾	韓 國
컬러 TV	3,840	900	2,000	4,400
黑白 TV	30	-	1,380	4,100
V T R	-	-	384	1,100
Audio	18,700	19,900	18,800	19,000
電 話 機	1,020	6,300	1,680	5,000
Perscom	2,900	2,580	2,500	2,800
電 卓	-	6,120	18,000	2,400
時 計	-	10,900	-	5,000
TV Game	-	1,200	-	500
電子렌지	960	-	-	2,000

註 1 : 모두 사시, 키트 포함

2 : Perscom에는 모든 단말기기 포함

3 : 時計에는 Clock을 포함

各國의 電子工業 全般 景氣 상황 予測

	싱가폴	香 港	台 湾	韓 國
85年 6月 現況	80	70	78	85
85年 前 欸	80	65	75	85
86年 前 欸	85	60	70	100

註 : 84년을 100으로 한 것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어느 수준이 밑바닥인가, 어느쪽이나 예측이 어려워져서, 日系 기업도 포함 각 세트 메이커는, 美國 및 日本의 상황을 살피면서 생산을 하면서 회복시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部品의 동향에서는 日系 부품 메이커의 現地 주재원에 의한 금년 및 86년의 電子工業 景氣 상황 예측(바뀌 말하면 部品의 受注 예측)은 위의 表와 같다. 어느 것이든 84년의 레벨과 비교한 指數지만 韓國의 86년 100을 제외하면 금년은 85, 香港은 60이란 指數가 나온다. 이것 또한 희망적인 관측을 덧붙인 것으로 實感으로는 더욱 나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상황이라 未曾有의 악조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半導體의 제품 需要 추이, 同용도별 수요 추이, 電子管의 생산 상황도 어찌되었든 84년에 대해서 85년의 숫자는 하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台灣, 86年初에 CMOS DRAM 原型 生産

— 台灣 최초의 16Bit 電算機 OS 개발도 성공 —

台灣의 소식통에 의하면 100만 Bit Class의 CMOS DRAM의 개발이 완성에 가까와져 86년 봄에는 제품의 原型을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격 出荷를 위한 生産은 87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개발의 성공에 따라 台灣의 超大規模 集積回路(VLSI) 技術은 선진국의 수준에 일보 가까와지게 되었다.

또한 台灣의 工業研究院 電子所가 대만에서 최초로 16Bit 컴퓨터 OS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제까지 대만에서 제조된 Perscom의 OS는 모두 外製였었다.

西独 · 荷蘭 · 佛, Digital VTR 공동 開發에

— 歐洲 規格 제정, 日本의 공세에 對抗기로 —

歐洲에서는 日本 메이커의 輸出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西独, 네델란드, 프랑스의 家電 메이커가 VTR의 Digital Standard에 대한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

西独의 日刊經濟紙 Handelsbrat에 의하면 현재 VTR의 Digital Standard Project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西独이지만, 네델란드와 프랑스도 이에 가세한다는 것이다.

위의 Project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기업은

Philips, Thomson, Grundig, Boche/Braupunkt Telefunken, BASF, Agfa Gebalt 등으로 프로젝트 참가국도 財政 지원을 행할 계획이다.

참가 메이커가 각기 분담 분야를 선정했는데 Grundig社는 Video Head의 개발, BASF와 Agfa는 技術, Boche/Braupunkt 그룹과 Telefunken은 Digital VTR제품 전반이다.

「Digital에 의한 새로운 歐洲 規格의 개발」의 목적은 Digital化에 의한 画像, 音 등의 技術 개발을 목표로 한 순수한 技術面의 향상과 더불어 日本 메이커와의 치열한 경쟁에 이겨 남는다는 것이 크나 큰 목적이다.

西独 개발 당국에 의하면 同프로젝트는 87년까지의 3年 계획이다. 西独, 네델란드, 프랑스의 국가(기업을 제외)에 의하면 개발 投資額은 약 7,000만 마르크에 달할 전망이다.

Digital VTR 시스템은 이제까지의 Analog 방식에 대신하는 것으로 日本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同紙는 맺고 있다.

프랑스, 1 Chip TV 開發 계획

— User를 韓國이나 台灣이 되기를 기대한다 —

프랑스의 Thomson Semiconductor社는 1 Chip TV 제조를 가능케 하는 Bipolar Process를 개발하였다. 이 Process는 HF 2 C라고 불리어 지는 Process로서 npn Transistor의 치수를 7,000 μm^2 로부터 1,250 μm^2 로 축소시켰다.

「기술적으로 보면 HF 2 C 덕택에 Scanning Controller, Bus Interface, Croma Decoder, Video Processor, Tuner, IF를 1 Chip에 수용할 수 있었다」고 Thomson의 Bipolar 설계 담당인 Pierre Lusinchi는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User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는 일이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User를 韓國 및 台灣에서 찾고자 한다고 그는 기대에 차 있다. 그렇게 되면 이 回路의 설계와 제조는 1年 이내에 완성할 수 있다.

Thomson은 Linear와 Digital의 混合 Chip을

TV 세트에 적용시키려고 시험중이다. 완전한 Digital版은 5~6年이 걸린다고 한다.

Thomson은 이미 7종류의 Chip을 試作하고 있다. 이러한 Chip에는 Bus Controled Power Processor TEA 2126, Single Chip PAL-SECAM-NTSC Decoder 5640, Video Processor 5040, Scanning Control Circuit, Switch Mode Power Supply가 있다.

美 電子렌지市場 輸入品이 主力

— Share 50%? 韓·日의 現地生産으로 加速 —

美 電子렌지 市場은 다른 대형 家電機器와는 달리 輸入品의 점유 비율이 높다. 84年의 電子렌지 市場에서 수입품의 出荷 비율은 49%였으나 시장 자체의 확대로 실제로는 더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韓·日의 다수 메이커가 美國 내에서 생산을 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Solomon Brothers社의 전문가인 러셀 리어비트씨는 「美國의 大型 家電市場에서 성공한 것은 電子렌지가 처음이다」고 말하였다.

電子렌지는 다른 가전제품에 비해 급속히 小型化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輸入 코스트의 절감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도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측은 美 電子렌지 업계의 Pioneer인 리튼 Microwave Cooking社의 社長이다.

電子렌지는 그 Compact性 및 電子部品の 많은 사용에서부터 냉장고, 電氣 Oven 등 가정용 전기제품보다도 가정용 전자기에 공통 부분이 많다고 인정되었다. GE社의 대형 家電그룹 대표인 로저 시프케氏は, 「日本 메이커가 電子렌지에 혁명을 일으켰다. 電子렌지는 이제 고도의 Electronics를 구사하고 있다」고 술회하였다.

電子렌지의 폭발적인 伸張은, 75年の 출하대수가 100만대 수준이었으나 83년까지 500만대를 넘게 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84년에는 910만대를 기록하고 금년에는 1,080만대가 될 전망으로 있다.

輸入 電子렌지의 과거 10년간에 걸친 市場 점

유율은 통상 20%에서 40% 사이를 마크하였다. 그러나 韓·日의 유명 메이커가 다루어 美國내에서 現地生産을 하게 되면서부터 사실상 해외 메이커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일은 어렵게 되어 輸入 電子렌지의 定義조차도 모호해졌다.

美國産 電子렌지의 비율은 더 하락될 예측인데, 그 원인은 주로 운송비의 삭감, 關稅의 인하, 保險料의 저하에 기인하는 것이다. 리튼社에 의하면, 해외 메이커의 美 공장 설립은 작업의 대부분이 美國내에서 이루어 지지 않고 해외에서 행해진다고 하는 實態를 숨기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오직 組立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輸入 제품과 마찬가지로 電子렌지도 해외에서도 弗貨高의 혜택을 받아 왔다. 이러한 가격 경쟁에 따라 계속 감소되고 있는 美 電子렌지 메이커의 復權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台灣의 音聲多重 TV 美에 첫輸出

-美의 協力으로 受注 및 제조까지-

台灣의 소식에 의하면 同國製 音聲多重 컬러 TV가 美國에 輸出되기 직전에 있다. 台灣의 몇 개 家電 메이커가 이미 注文을 받았으며 머지않아 輸出을 개시하게 된다.

台灣 메이커는 美 DBX社로부터 권리를 획득, Zenith社의 協력으로 TV를 제조한다. 현재 美·日·西獨·韓國 등의 TV局이 音聲多重放送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몇 개 국가가 개발 계획에 있기 때문에 금후 音聲多重 컬러TV市場은 興盛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리와 중요 部品을 입수할 수 있으면 台灣에서의 音聲多重 컬러TV의 제조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된다. 台灣의 TV메이커는 音聲多重 컬러TV를 제조하게 되면 大型 쪽이 이익이 크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同製品의 제품을

수출하는 메이커는 大同과 Sharp(聲寶) 2個社가 된다.

스웨덴, 電話機 輸入 전면 自由化

-國營 電氣 通信公社의 品質承認 획득해야-

스웨덴 政府는 지난 11月 1日자로 電話機의 수입을 전면 自由化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의 자유화 조치는 지금까지 電話機 공급 및 電話 가설 등 제반 사항을 國營 電氣通信公社인 Televerket社가 독점해 오므로써 많은 부작용이 발생, 이의 타개책으로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Televerket에 의해 공급된 電話機는 모델이 다양하지 못하고 균일화 되어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호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10만여대의 電話機가 不法으로 반입되는 등 암시장이 크게 성행되고 이의 근절책이 시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同國 政府는 이번 輸入 自由化에 따른 Televerket社 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 自國에 수입되는 모든 전화기에 대해 上記 公社의 엄격한 品質檢査를 받도록 했으며 同社의 품질승인 마크인 T字를 획득한 제품에 한해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조치하였다. 그런데 이 T字 마크를 획득하는 데는 최소한 3~4개월이 소요되며, 기술상으로는 東南亞에서 생산되는 尙美 수출용 전화기 정도면 合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尙스웨덴 전화기 수출을 위해 T字 마크의 획득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現地에서 需要가 많은 Memory 및 Redial 기능의 전화기 수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同國의 電話機 市場 규모는 Televerket社 공급 기준으로 연평균 30~40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輸出 실적은 香港 및 台灣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